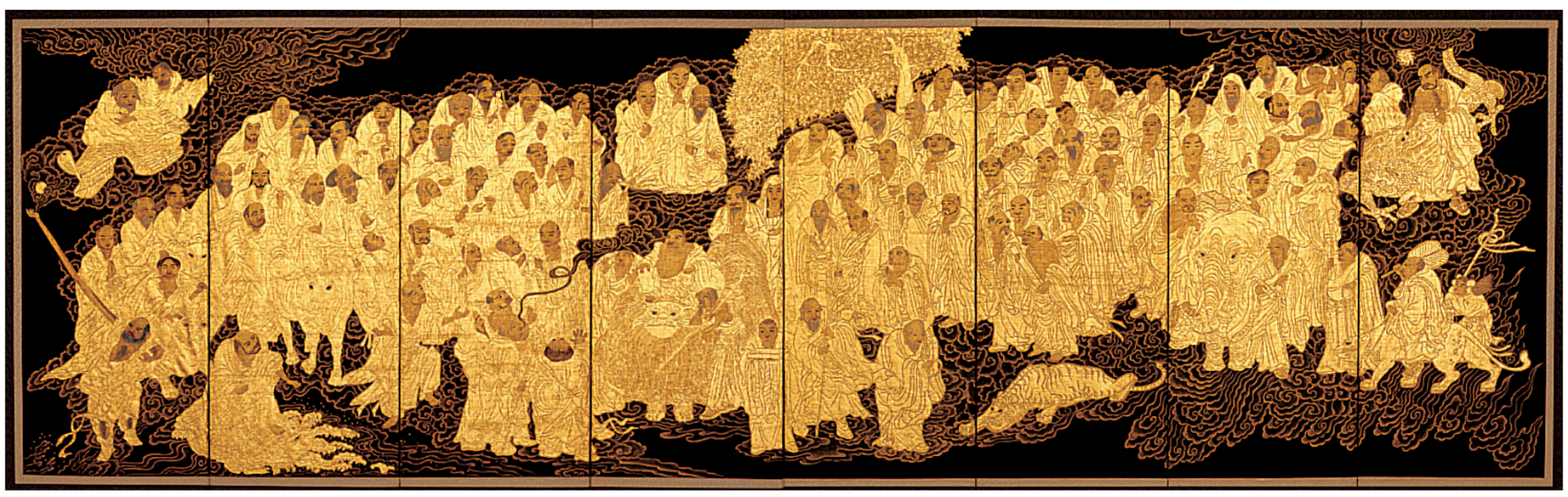
최고로 정성스럽게 그린 불보살세상



금니나한도병풍(186×68.5cm 8幅), 2001년 제2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은상 수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영희 개인전 '전통 불화전' 강화미술관 12월 23~29일

금니나한도 등 50여 점 전시
2005년 전면 금박탱화 시도
'금니백팔불' 민속박물관 소장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영희가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강화미술관에서 '전통 불화전'을 연다.

단청장 만봉 스님의 수제자인 박정자 문하에서 공부하고 전통 불화를 계승해 온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니나한도병풍, 백의관세음보살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동진보살도 등 전통 불화 50여 점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는 조 작가는 전통 불화를 전수받아 전통불화의 채색탱화, 금니탱화 그리고 사라진 기법을 찾아내어 새로운 금박탱화를 선보였다. 수상작품 중 금니백팔불은 문화재청이 구입해 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 작가는 2005년 전시에서 금박탱화를 선보였는데 전통불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전체 화면의 금박을 시도했다. 이후 전면 금박의 탱화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금니나한도 8폭 병풍(金泥羅漢圖, 186×68.5cm 8幅)'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면서도 치밀한 형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능숙한 금니 처리방법이 돋보인다. 화면 가득히 금채로 바탕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나한의 상이한 동작과 표정을 배치했다. 그 인체표현에서 윤곽선의 돋을새김은 평면적인 금니의 화면에 긴장감과 함께 짜임새를 제공한다. 나한상은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특색 있게 배치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특히 얼굴 부분의 표현은 회화적인 맛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신체 부분의 평면적인 금채에서 회화적인 변화와 액센트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나한상의 표정은 제각각 다양하게 표현되어 이러저러한 중생의 다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표정을 감정과 성격에 따라 변화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얼굴 표현에서 전체적으로는 짜임새가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는 제작 의도가 주목을 끈다. 금채로 화면 전체를 화려하면서도 평면적인 효과를 내었지만 얼굴 표현과 신체 이외의 빈 공간 등에서 강약의 리듬을 화면에 구사하고 있다.

△'백의관세음보살도'에서는 피부색을 소면이나 황면으로 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로, 보살이 세상을 교화함에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난다. 이를 보문시현이라 하며, 33응신이 있다.

△'후불탱화'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로 문수 ·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을 비롯하여 10대 제자와 사천왕을 배치했다.

△'지장탱화'에서는 지장보살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 보처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명부시왕 판관 녹사 장군 사자 천동천녀를 배치했다.

△'감로탱화'는 탱화상단에 7여래(다보여래, 보승여래, 묘객신여래, 광박신여래, 이포외여래, 아미타여래, 감로왕여래)를 모셨으며, 하단의 아귀 모습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육도의 고통을 집약해 표현한 도상이다.

조 작가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로 정성스럽게 불화를 그린다고 한다. 불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형상화하기 어려운 성현들의 세계를 눈앞에 드러내는 일이며, 신심과 정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중은 성지나 유적, 또는 인근 사찰에서 불화들을 보면서 속진의 응어리를 풀기도 하고 환희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것은 불화가 신심과 수행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화를 다른 장르의 그림과 비교해볼 때, 불화가 갖는 의미와 매력은 그림을 통해 작가와 대중이 서로 신앙을 주고받으며, 또한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불화를 그리는 일은 예술을 추구하는 일인 동시에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는 사람의 노력, 신심, 정진, 스승으로부터 전해지는 화법,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원만한 불보살이 나타나 중생들의 간절한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영희 작가는 199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박정자 선생 문하에서 입문했으며, 2000년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상을 비롯해 다수 수상했다. 2005년 '전통 불화전(갤러리 라메르)'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금니 백팔불(문화재청 소장), 공주 고려사적지 청림사 금박후불, 신중탱화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 회원, 강화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전통불화을 강의하고 있다. 문의 (032-932-1404)

박대성 '장생포 석굴암을 만나다' 展

장생포문화창고 12월 30일까지

경주 남산 그림 등으로 불자들에게 친숙한 박대성 화백이 울산 지역에서 첫 전시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고래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특별전 박대성 화백의 '장생포 석굴암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박대성 화백이 재해석해 그린 석굴암 본존불과 십대제자상.

독자적인 화풍으로 현대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온 박대성 화백의 예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 14일 현재 1만8000여 명이 관람했다.

전시는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과 십대제자상을 박대성 화백이 자신의 화풍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전통 도자기 및 공예품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고미' 연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고래문화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 콘텐츠를 활용한 상생활동의 일환이다. 성공적인 실무교류 사례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현재까지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로 협약을 맺을 예정인 기관 및 기업과도 다양한 실무협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완 기자

윤용진, '칼 융이 보내온 편지'로 국제영화제 수상

8개 국제영화제서 다큐 부문 대상
칼 융의 눈 통해 본 부처님 십무기

영화 '할'과 '선종 무문관'을 각본 · 감독한 윤용진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 '칼 융이 보내온 편지(A Letter from Carl Jung)'로 뉴욕 국제 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영화 '칼 융이 보내온 편지'는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2020년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던 이해경 만신과 강영호 사진작가의 '접신과 흡혼'을 소재로 했다. 부처님의 십무기를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의 눈을 통해 바라본다.



'칼 융이 보내온 편지'는 뉴욕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프래닛 영화제, 도쿄 국제 단편 영화제 등 8개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2022년 한국어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용진 감독은 인하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디자인 전문학교 그래픽디자인과를 졸업했다. 1997년 광고제작사 바닐라엔젤을 창업해 TV CM 등 기업홍보물 100여 편을 제작했다. 선수필집 〈공황장애는 가짜다〉 〈세상 벽암록〉 등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